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동결혼법안이 미성년자 학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



볼리비아 정부가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결혼을 통해 성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던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18세 미만과의 결혼 및 사실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이는 2014년 제정된 ‘제603호 가족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으로 법안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결혼 연령을 18세로 높이는 것은 곁으로는 긍정적인 조치처럼 보이지만, 과거 성범죄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전에 법의 허점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사실혼 관계나 결혼을 맺었던 성인들, 특히 고위 정치인들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법안에는 “상호 동의”가 있으면 범죄가 아니다는 조항이 있어 미성년자와 성인이 동의하에 결혼하거나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면 성적 학대나 착취 행위도 처벌하지 않을 수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의회는 집권당인 사회주의운동당(MAS)의 베지니아 벨라스코 상원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예비 승인한 상태며 하원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볼리비아 시민등록청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16-17세 청소년과 성인 간의 결혼은 총 6,001건이 등록, 인권옴부즈맨 보고서는 12-15세 사이 소녀 487명이 결혼한 사례도 확인했다. 현지 언론은 이를 “사실상 아동 성애를 위한 법적 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엔은 아동 결혼을 명백한 인권 침해로 간주하며, 조혼이 폭력과 학대, 조기 임신, 학업 중단, 빈곤의 악순환으로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범죄 처벌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라틴복음주의연합(AEL)의 여성 부서장 파티마 올리바 박사는 “법률 문안에는 결혼, 자유로운 동거, 사실혼 관계가 모두 포함돼 있는데, 이는 실제로 많은 미성년자에 대한 착취를 은폐하는데 악용돼 왔다”고 비판했다. 또 “가족의 합의나 지역 관습을 평계로 미성년자가 성인에게 사실상 매매되거나, 학대를 받아도 법적 처벌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명과 가정을 위한 이베로아메리카 회의’ 회장 아아론 라라는 “이 법은 과거 범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고위 정치인들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인식도 있다”며 “국가는 모든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16년에 15세 소녀와 강제 성관계한 혐으로 고발된 바 있으며, 해당 사건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베드로전서 4:2-3)

하나님, 마치 미성년자를 위한 개정안인 것 같지만 다음세대를 학대할 수 있는 법적 조항으로 인해 악용될 위험이 있는 법 개정의 추진을 막아 주십시오. 법망을 피해 죄를 은폐하려는 검은 음모를 밝히 드러내 주시고, 악한 자의 사상과 생각이 무너지게 하셔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또한, 조혼으로 고통받은 상한 심령의 소녀들에게 하늘의 위로로 찾아가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어둠에서 나와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40년 독재’ 우간다 대통령 아들 “대선서 아버지 안찍으면 추방”

우간다 독재자 요웨리 무세베니(80) 대통령의 아들인 무후지 카이네루가바 우간다군 총사령관이 내년 대선에서 아버지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추방하겠다고 위협했다. 카이네루가바는 15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다가오는 대선에서 무세베니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며 “우리는 모든 반역자들을 공개적으로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세베니의 독재가 이어지고 있는 우간다는 내년 1월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야권에 대한 탄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무세베니는 지난 1986년부터 40년째 장기 집권 중이다. 이달 초 카이네루가바는 야권 지도자 보비 와인의 경호원을 체포하고 고문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카이네루가바는 “오랫동안 미뤄졌던 폭행을 포함해 (이러한 폭행을 한) 병사들의 행동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진다”면서도 “이건 애피타이저였을 뿐”이라고 위협했다. 무세베니의 후계자로도 거론되는 카이네루가바는 사회 전반에 대한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요구를 쏟아내는 것으로 악명높다. 이날은 여군의 복장을 강요했다. 카이네루가바는 “우간다군의 모든 여성 전우들은 이제부터 치마를 입고 행진해야 한다”며 “바지는 남자를 위한 것이지 여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야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시편 10:17-18)

하나님, 40년간 장기 독재를 이어온 무세베니 대통령과 아버지의 장기 집권을 도우려는 아들 카이네루가바를 주께 고발합니다. 겸손히 섬겨야 할 백성들을 위협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저들의 교만을 꾸짖으사 심판 주 하나님 앞에 무릎꿇게 하소서. 독재자의 압제로 신음하는 우간다의 교회와 영혼들이 기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께 기도하게 하사 주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간다의 모든 백성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경배하게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 민주콩고 동부, 성폭력 700% 급증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에서 무장단체들의 공격이 격화되면서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액션에이드(ActionAid)가 16일 밝혔다. 3월 한 달 동안에만 247건의 성폭력 사례를 기록했으며, 이는 2월 대비 약 700% 증가한 수치다. 3월과 4월 두 달 사이 보고된 성폭력 사례는 총 381건으로, 이는 2024년 한 해 동안 기록된 사례의 절반에 해당한다. 액션에이드 민주콩고 책임자인 사니 야쿠바는 “이 숫자조차도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많은 피해자들이 두려움과 트라우마로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성폭력이 전쟁의 무기로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2025년 들어 조흔 및 강제결혼 사례도 급증했다. 현재 북키키부 지역에서는 약 270만 명이 난민으로 떠돌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고마 지역 인근의 비좁은 임시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다. 무장단체들은 이들 캠프 일부를 강제로 철거하고 있으며, 여성들과 소녀들은 다시 위험 지역으로 내몰려 성폭력과 강제결혼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유다서 1:24-25)

하나님, 콩고민주공화국의 내전으로 인해 성폭력과 조흔, 강제결혼의 위기로 고통하는 여성들과 소녀들을 주께 익탁드립니다. 성폭력을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무장단체들의 패역무도한 행위를 꾸짖어 주시고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의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케 하옵소서. 성 착취로 인한 두려움과 상처로 가득한 이 땅의 영혼들을 능히 보호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이들의 상한 심령과 육체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흠이 없는 예수교회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옵소서.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와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비밀경찰의 종교자유 침해 정리한 인권단체,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



벨라루스 정부가 벨라루스 비밀경찰 KGB에 의한 종교자유 침해를 문서화했다는 이유로 인권 감시 기독 단체 ‘크리스천 비전’(Christian Vision)을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했다고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이 최근 보도했다.

2020년 벨라루스 내 교회 소속 인권운동가들이 설립한 이 단체는 현재 리투아니아에 ‘벨라루스를 위한 크리스천 비전’(Christian Vision for Belarus)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벨라루스 내 종교자유 침해 및 인권 탄압을 고발해 왔다.

이에 대해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 사이 벨라루스 법원들은 이들 계정과 로고를 ‘극단주의 콘텐츠’로 규정했다. 국가보안위원회(KGB)는 이에 동의하며 4월 1일 이 단체를 ‘극단주의 단체’로 공식 선언했다.

KGB는 단체와 연관된 인물 3명, 나탈리아 바실레비치, 나탈리아 하르코비치, 즈미트리 코르네엔코를 극단주의자 명단에 등재했다. 이 가운데 코르네엔코는 최근 경찰이 오르샤에 있는 그의 아버지와 형의 자택을 급습하고 DNA 샘플을 채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은 ‘코르네엔코를 추적하는 데 DNA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단체 조정자 바실레비치는 “예상된 일”이라며 활동을 지속할 의지를 밝혔지만, 내부 정보 제공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단원 코르네엔코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한 기독교인 박해를 기록하는 ‘전쟁 반대 기독교인’(Christians Against War) 프로젝트와 지방 정부 감시 단체 ‘국민 대의원’(People’s Deputy)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 역시 극단주의로 분류됐다.

벨라루스 종교법 제12조는 ‘극단주의 활동’에 연루된 이들이 공식 종교단체를 설립하거나 이끌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조차 행정법 및 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 유엔 벨라루스 인권특별보고관 애나이스 마랭은 “극단주의 개념은 표현의 자유, 시민운동, 정치적 반대까지 포함하며, 실질적으로 모든 시민 활동이 처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벨라루스는 유럽에 있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소련식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다. 벨라루스의 KGB는 구소련 시절의 국가보안위원회(KGB)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현재도 정권 유지와 내부 탄압의 핵심 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나라는 정치·사회·종교 모든 면에서 통제를 일상화한 ‘유럽의 마지막 독재 국가’로 불린다 (출처: 복음기도신문, 기도24·365본부 종합).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시편 105:14-15)

하나님, 극단주의 개념을 오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종교의 자유까지 박탈하려는 벨라루스 정부를 꾸짖어 주십시오. 벨라루스 내의 종교적 박해 상황과 KGB의 실태를 고발한 기독 인권단체를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과 기도로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극단주의 단체로 내몰린 기독 단체와 교회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를 더욱 의지함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자유가 임하여 주를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 ‘턱이 가슴까지’…이란, 마약 탓에 목 꺾인 청년의 희귀수술 사례

이란의 20대 청년이 마약 남용으로 인해 목이 90도 가까이 꺾이는 ‘머리떨굼증후군’ 증상을 겪은 사례가 보고됐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이란 이스파한의 알자흐라 대학병원 의료진이 공개한 사례를 인용해 암페타민, 아편, 헤로인을 포함한 다양한 마약을 수년간 과용한 결과 목이 극단적으로 구부러진 23세 남성의 상태를 전했다. 해당 남성은 마약 부작용으로 척추가 심하게 굽었고, 결국 머리까지 지탱하지 못하는 상태로 악화됐다. 턱이 가슴에 닿을 만큼 장시간 고개를 숙이는 상태가 15개월간 지속됐고, 팔 저림과 마비 등도 동반됐다. 이 증후군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과 같은 신경근육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번 사례처럼 마약 남용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심각한 척추 변형이 확인됐다. 의료진은 마약이 근육과 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마약 투약시 오랜 시간 동안 특정 자세를 유지하게 되는데, 몇 달이 지나면 이로 인해 근골격계 구조에 변화가 생기고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환자는 수술을 통해 목의 정렬을 바로 잡고 약물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뒷과 같이 너희에게 암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누가 복음 21:34,36)

하나님, 수년간 과용한 마약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으로 척추가 심하게 굽은 20대 청년과 같이 영과 육을 병들게 하는 마약 중독에 빠진 모든 인생을 돌봐주시길 간구합니다. 마약의 방탕함과 술취함에 둔해진 자들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사 심판의 그날이 뒷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십자가 복음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께 돌아온 영혼들이 신부 된 이란교회를 통해 말씀 안에서의 절제와 거룩한 삶의 본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이 회복되어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게 하소서.

▲ 중국, 장애인·소수민족 여성 대리모 삼은 불법 조직 적발

중국 중부 후난성에서 장애인과 소수민족 여성들을 불법 대리모로 삼아 수익을 올려온 조직이 현지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21일 뉴시스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12일 창사 외곽의 한 3층 주택에서 불법 대리모 의료 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민간 병원 소속 마취과 의사, 간호사 등 18명을 체포했다. 해당 건물은 모든 창문에 불투명 필름이 붙여져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처리돼 있었으며, 경찰은 내부에서 수술실, 실험실, 병동 등을 갖춘 불법 의료 시설을 확인했다. 현장에서 대리모와 난자 기증자를 포함한 9명의 여성이 구조됐으며, 구조된 여성들은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가족에게 돌아갔다. 대리모 중 한 명인 41세 청각장애 여성은 “28만 위안(약 5,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배아 이식을 받았다”고 수어로 진술했다. 또 다른 29세의 소수민족 출신 여성은 “19만 위안(약 3,700만 원)을 받고 무마취 상태로 대리모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SCMP는 중국에서 불법 대리모 산업이 성행함에도 이를 금지하는 법이 없어 제도적 허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 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시편 74:20-21)

하나님, 생명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주인 되어 불법 의료 행위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어리석고 탐심이 가득한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주여, 악이 성행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선인지 그 옳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도 헛된 욕심과 속임에 미혹된 여성들을 진리로 책망하여 주셔서 어두움의 일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맷으신 주의 구원의 언약이 중국을 향해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을 만날만한 가장 좋은 때에 생명의 말씀이 들려져 믿음에 이르는 축복이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다르푸르 난민 사이에 복음 확산



수단에서 내전과 기근이 겹쳐지며 약 3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실향민들이 인근 국가들로 탈출하고 있는 가운데, 난민들 사이에서의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 미션네트워크에 따르면, 호라이즌스 인터내셔널(Horizons International)의 파트너이자 북수단 출신 무슬림 가정에서 자란 야시르 에릭 박사는, 이러한 난민들이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넘어 문화적·종교적 전환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에릭 박사는 수단 내전 이후 이집트, 알제리, 우간다 등으로 탈출한 난민들이 문화적 차이와 인종차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집트에서는 피부색과 출신 배경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정치 갈등으로 수단 난민들이 환영받지 못하며, 우간다 난민 캠프는 심각한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특히 2023년 4월 내전 이후 급증한 난민 유입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그러나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수단 북서부 다르푸르 지역 출신 난민들 사이에서는 기독교로의 개종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다르푸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던 기독교인이, 지금은 차드, 이집트, 남수단 등지의 난민 공동체에서 늘어나고 있다.

에릭 박사는 최근 차드에서 단 하루 동안 250명의 다르푸르 출신 무슬림 배경 신자(Muslim Based Believer, MBB)들에게 세례를 줬다고 전했다. 그는 이들이 이슬람에 대한 환멸과 기독교인의 사랑과 섬김 때문에 복음에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형제자매들에게 살해당하는 현실 속에서, 이슬람이 해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MBB들이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도 다양한 신학적·영적 도전에 직면한다. 에릭 박사는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하며, 억압의 영으로부터의 해방과 새로운 예배 방식을 배워야 하는 등 전방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 남수단에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무슬림에 속해있었고 집단학살을 목격했다며, 회심 이후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이들과 평화롭게 사는 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롭게 사는 법이 수단의 결핍”이라며 “정치적 지능이나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평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배경에는 한 기독교인이 25년간 자신을 위해 기도했던 사실이 있었다며, “박해와 증오에 대한 해답은 기도”라고 말했다. 에릭은 전 세계 교회에 “수단군(SAF)과 신속지원군(RSF)이 국민을 위한 평화를 추구하고, 다르푸르를 비롯한 분쟁지역에서 많은 난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골로새서 1:20,27)

하나님, 큰 환난을 당한 수단의 실향민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많은 무슬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흩어진 국가들에서 차별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가운데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십자가 복음을 생명으로 만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옵소서. 내전과 기근으로 고통하는 수단에 예수교회가 더욱 일어나 영광의 소망을 품고, 주님이 이루신 온전한 화평을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인도 해군, 로힝야 난민 40명 바다로 내던져…기독교인도 15명 포함

인도 해군이 미얀마 로힝야 난민 최소 40명을 바다에 내던졌으며, 이 중 약 15명은 기독교인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난민 중에는 여성과 아동, 노인도 포함돼 있었고, 5월 8일 인도 해양 국경 부근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강제로 바다에 내몰렸다. 일부는 미얀마 섬 해안에 도달했으나 현재 행방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건은 인도 당국이 뉴델리에서 난민들을 체포하며 시작됐고, 이후 항공모함으로 이송돼 유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 내 로힝야 난민들의 가족들은 “강제로 바다에 던져졌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인도 유엔난민기구(UNHCR)에 등록된 합법 난민”이라고 밝혔다. 생존자는 어부의 전화로 가족에게 구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특히 로힝야 기독교인들도 이번에 포함돼 있었으며, 일부는 해군에 의해 구타를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엔은 이를 국제법상 금지된 강제송환 금지 원칙 위반으로 규탄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난민 측은 대법원에 복귀 탄원서를 제출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에서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박해받아왔고, 2017년 대규모 학살로 74만 명 이상이 방글라데시로 탈출했다. 현재도 이동, 교육, 고용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인도 내에서도 힌두 민족주의 단체들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유엔과 인권단체는 이들을 ‘인종청소’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사무엘하 22:3)

하나님, 살길을 찾아 인도로 온 로힝야족 난민들이 해군에 의해 강제로 바다에 내던져진 사건으로 더욱 두려움과 박해의 아픔으로 고통하고 있을 로힝야족을 돌봐주십시오. 합법 난민들에게까지 행해지는 만행으로 인해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로힝야족이 구원의 반석 되신 주께로 피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음을 들려주옵소서. 또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로힝야 기독교인과 인도 교회를 통해 구원의 뿔 되신 십자가를 높이 드사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 독일 10대들, ‘신나치’ 단체 만들어 난민시설 공격

독일의 10대 청소년들이 이민자로부터 독일을 지키겠다며 과거 히틀러 정권의 이름을 따르는 ‘신나치(네오나치)’ 단체를 만들어 난민시설을 공격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했다. 독일 연방검찰은 이날 범죄단체조직·살인미수·중방화 등 혐의로 14~18세의 청소년 5명을 체포하고 관련 장소 13곳을 압수 수색했다. 이들은 ‘최후의 방어운동(LVW)’이라는 테러단체를 조직해 SNS를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고,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난민 임시숙소 등에 불을 지르거나 방화를 시도했다. 이들은 난민숙소에 나치 상징 문양인 하켄크로이츠를 표시하고 ‘외국인 나가라’ 등 외국인 혐오 낙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이민자와 정치적 반대자 공격을 통해 연방공화국 민주주의 체제 붕괴를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독일 보안당국은 작년부터 틱톡 등에서 청소년 신나치 조직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잠언 30:5,32)

하나님, SNS를 통해 확산한 신나치 조직에 빠진 독일 청소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오니 진리가 이들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인도하소서. 난민시설을 공격한 10대들과 청소년들을 교묘히 이용해 극단적 민족주의를 부추기며 혐오와 폭력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하려는 악한 세력의 도모를 꾸짖어 주소서.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갈등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독일 영혼들이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때 더욱 순전한 주의 말씀을 불들어 선을 구하는 세대로 서게 하옵소서.